

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

#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충북 바이오·반도체·이차 전지 산업 등이 세계적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유치함에 따라, 향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.

○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은 도 주요 공공기관의 증부권 편중으로 인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을 기하고, 연인원 1만3천여명 교육생('19년 기준)의 북부권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북부권에 신축하고자 함.

-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은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 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·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, 미세먼지 저감, 산림휴양·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('19년~22년 500ha) 매입 추진하려는 사업임.

## 4. 주요내용

### □ 재산의 취득

#### 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

- 위 치 :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16-1 일원(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)
- 사업기간 : 2021년 ~ 2027년
- 매입규모 : 543,145m<sup>2</sup>
- 사 업 비 : 1,600억원(도 800, 청주시 800)

#### ②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

- 위 치 : 제천시 신백동 27-1 일원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
- 신축규모 : 7,739.48m<sup>2</sup>
  - ※ 3개동 : (본관동) 지하1층 지상3층 (식당동) 지상3층 (강당동) 지상1층
  - ※ 주요시설 : 대강당, 강의실, 회의실, 사무실, 식당, 직원숙소 등
- 사 업 비 : 404억원 ※ 총사업비 467억원(토지보상비 63억원 제천시 부담)
  - ※ 신축예정부지(101,086m<sup>2</sup>)는 제천시에서 무상임대 제공  
(道-제천 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, '20.7.20.)

### ③ 도유립 행정재산 취득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-2 등 14필지
- 사업기간 : 2021년
- 매입규모 : 745,546m<sup>2</sup>
- 사 업 비 : 22억원

## 5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
- 첫째,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의 건은,
  - 지난 3월 과기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유치 공고에 4개 시·도가 경합하여 충북 청주로 최종 결정된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,
  -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기초과학의 육성은 물론 바이오헬스,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조강국,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임
  - 건립 부지는 오창읍 후기리 산16-1 일원(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)이며, 부지규모는 543,145m<sup>2</sup>으로,
  - 부지매입 비용은 1,600억원으로 도부담이 800억원이며 청주시 부담이 800억원 임
  - 충북연구원이 분석한 경제효과를 보면, 5조 2,8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, 1조 7,94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, 2만 85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것으로 예측하여 부지 취득의 특별한 이견은 없음

- 둘째,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의 건으로,
  - 충청북도는 현재 전체인구(164만명)의 52%, 제조업 종사자 수의 42.8%인 86만명이 청주권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며,
  - 또한, 주요 공공기관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한 남·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.
  - 제천시 1인당 GRDP가 23백만원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10번째인 대표적 저발전 지역에 해당하며,
  -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을 추진중임.
  -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자료를 보면,
    -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비용(B/C Ratio) 0.2189, 내부수익률(IRR) -6.17%, 현순재가치(NPV) -40,239백만원으로 매우 낮음
    -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,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충북지역균형발전 계획,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의 균형발전에 따른 권역별 추진사업 등 법·제도적 부합성에 일치하며, 자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의 시급성, 지역과급효과 등에 부합하지만, 지역균형발전에서의 효과성에 따른 남부권 반대여론과 사업추진 상에서의 토지수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종합적인 분석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
    -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건립은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과급효과, 그리고 자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음

- 이에 따라 북부권의 균형발전 요구 수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(제천)이전 사업은 필요하나, 향후 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기존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셋째,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,

-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·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, 미세먼지 저감, 산림휴양·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(2019년~2022년 500ha)매입하려 하는 것으로,
- 현재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였으며, 2021년에도 22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 끝.